



http://cny.new21.net

전문지식에서 상식까지 ... 알기 쉬운 <생명공학 사이트>

글_ 조유아 전자신문 기자 forange@etnews.co.kr

에서 단백질, 유전자 등의 구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다. 이와 함께 생명공학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진화와 유전공학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생명공학 연구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. 사이트에서는 침팬지는 진화해도 인간이 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등을 제시하는 등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가득하다. 이런 일반적인 읽을거리는 물론 지난 2002년 전세계에 생명공학 학문을 일으켰던 인간게놈프로젝트와 포스트 게놈 시대, 프로테오믹스, DNA칩,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.

황우석 박사의 연구 분야인 동물 복제와 인공 장기, 줄기세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. 이 사이트에서는 양을 복제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인 돌리의 탄생기가 소개되고 있다. 또 최근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의 접목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'바이오 인포매틱스'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다소 딱딱하기만 할 것 같은 생명공학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재미있는 생명공학 아사가 부록으로 첨부됐다. 이 아사에서는 '허준은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을까' 하는 의문을 풀어주고 '선과 악을 넘나드는 산소의 두 얼굴'을 볼 수 있다. 

최 근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'인간 배아 줄기세포'를 만드는데 성공하는 등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2002년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과학자들은 포스트 게놈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 차원에서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.

생명공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꿈의 기술임에 틀림없지만 어려운 기술과 용어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어렵다. 내운이의 생명공학이야기(<http://cny.new21.net>)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생명공학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. 삼성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인 최내운 씨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일반인들과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목적으로 구성했다고 한다.

이 사이트에서는 최신 생명과학 뉴스를 비롯해 갖가지 궁금한 생명공학 호기심을 풀어주는 게시판도 운영된다. 또 액틴(actin)과 같은 어려운 생명공학 용어를 알파벳과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준다. 액틴이란 다세포 생물의 세포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로서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단하게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.

이 사이트의 또 다른 강점은 인체에 침투하는 각종 바이러스



글쓴이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, 전자신문사에서 통신기술, e-비즈니스, 소프트웨어 등 IT분야 전문기자로 재직중이다.